

# 통일시대, 출판인에게 부과된 여섯가지 과제

부길만 | 동원대학 출판미디어과 교수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의선 복구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인도적이거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류만으로 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는 없다. 진정한 통일은 남북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문화를 되살릴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판인에게 주어진 임무는 막중하다. 미래 지향적 사고를 바탕으로 남북의 공동문화 건설을 위해 남북한 출판인이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남북 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구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 논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진정한 통일은, 헤어진 가족이 만나고 경제적 협력이 이뤄지는 차원을 뛰어넘어, 남북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온전한 민족문화를 살려낼 때 가능해진다. 이런 시기에 출판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남북한 출판 교류 활성화해야

첫째, 출판계는 남과 북을 새로운 공동문화 건설의 주역으로 인식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남과 북은 출판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출판을 상업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조직 동원을 위한 선전선동의 도구로 본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주장에 따라, 출판물을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힘있는 무기”로 본다.

이런 북한의 출판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 서한, 담화 등을 책으로 간행해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의 외국문중합출판사에서는 이미 “김일성 노작 650종 1,900만여부와 김정일 노작 109종 352만여부를, 16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에 출판보급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해외에 널리 선전”했다고 북한 중앙방송은 밝힌 바 있다(국정원 자료

www.nis.go.kr).

체제의 차이를 떠나서 볼 때, 북한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상을 책의 형태로 대량 보급함으로써, 출판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남북의 출판 교류와 남북 공동의 출판작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출판 교류로는 남북의 도서목록 및 우수도서의 교환을 들 수 있다. 남북의 도서목록 교환은 1992년 남북교류 합의서에 뒤따라 나온 부속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남북은 각각의 출판단체에서 추천하는 우수도서를 교환해 서로를 알리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마다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에 북한도 참여해 출판물을 전시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 공동으로 평양에서도 국제도서전 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

출판교류와 함께 남북 합작을 통한 출판물의 공동 제작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외부의 중개로 남북이 합작해 공동 출판을 하는 경우는 나오고 있으나, 남북이 직접 계약을 맺은 공동 작업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남북의 저작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말의 순화와 민족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통일 언어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족어 사전을 편찬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사전을 참조해 작업하다가 공동 사전편찬 작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 양쪽 출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출판기술이나 경영면에서 남한이 앞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전지역 출판 같은 경우,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사업을 벌이는 북한이 남한을 앞서고 있다. 그 주요한 업적이 《팔만대장경》《조선왕조실록》《조선고전문학전집》 등의 번역출간이다. 앞으로는 남북이 힘을 합쳐 국가적인 대규모 출간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출판교류로 이질감 극복해야

다섯째, 도서유통의 현대화를 이룩해야 한다. 통일은 당연히 출판물의 증가를 수반할 것이다. 남북한의 인구수는 1999년 현재 남한 4,686만명, 북한 2,208만명(추산)으로 합계 6,894만명이다. 통일되면, 전체인구는 단순비교로도 남한 인구의 1.5배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북한은 공산주의 교양 습득에 치우쳐 있고 김일성·김정일 저작 등의 책에 많은 관심이 치우친 점, 젊은 필자군이 등장한 지 그리 오래 되지 못했던 점 등으로 미뤄, 열린 세계를 향한 고전 교양 서적들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출판시장의 팽창은 어렵지 않게 예견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도서유통 구조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서유통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끝으로, 출판을 통해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남북은 너무나 상이한 체제하에서 반세기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통일 이후 커다란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한다. 통일의 완성은 심리적 통일이다. 이를 위해 출판을 통한 사회교육, 책을 통한 정신교육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작업은 통일 후가 아니라 통일을 논의하는 지금부터 출판계가 준비해야 할 일이다. ●